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서청희** · 이성규***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세 가지 차원, 즉 시간성, 관계성, 장소성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자살로 잃은 24세 미만으로,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4명이었다. 4명의 연구 참여자 중 두 명은 어머니의 자살을 경험하였고, 다른 두 명은 아버지의 자살을 경험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자살과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즉 1) 부모가 자살로 사망하기 전, 2)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날, 3) 그날 이후 생존의 시간, 4) 지금의 삶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부모의 삶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살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표현한 개별적 경험을 토대로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그들의 성장과정에서의 위기상황 및 위기극복과 관련한 지지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조 전문가들은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2차적인 위기에방에 초점을 두고, 상실 대상과의 관계에 따른 애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주제어: 자살, 상실, 청소년, 자살 유가족

* 본 연구는 2018년도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이며,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음(승인번호: SSU-201804-HR-083-01).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제1저자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slee90@ssu.ac.kr

I. 서 론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2016년 전체 자살자의 약 54%에 해당하는 7,113명이 30세부터 59세의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자살로 영향을 받는 가족을 최소 6명으로만 어림잡아도 중장년층 배우자와 노년기 부모, 그리고 어린 자녀 유가족이 한 해에 4만 명 이상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살 유가족은 충격과 슬픔 뿐 아니라 죄책감, 비난, 수치심 등의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며,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Cvinar, 2005).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 유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자살 유가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 유가족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주로 이루어졌는데(김영아, 변재원, 2016), 대부분 상실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험적 연구로 진행되었다(박지영, 2007; 김가득, 2012; 이종익, 2013; 이명훈, 2014; 엄은주, 2015).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성인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만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가 크고, 가족과 학교, 또래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상실과 양육 환경의 큰 변화, 충격적인 죽음의 경험은 성인이 경험하는 부모 사별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uramoto, Brent & Wilcox,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 사망 후 2년 간 정신문제가 증가하고(Cerel, Fristad, Verducc, Weller & Weller, 2006), 성인기에 자살행동이 나타날 위험성 또한 높았다(Krarup, Nielsen, Rask & Petersen, 1991). 그러나 부모의 상실 이후 오히려 또래보다 성숙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성장과정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Hogan, 2006), 사건 이후의 경험과 대처가 중요한 회복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경험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애도과정을 지원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실천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분석기준인 시간성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주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장소와 관계성을 탐색하여, 청소년 유가족의 애도과정을 지원하

는데 경험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상실과 슬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의미 있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가 흔들리는 커다란 경험일 것이다. Bowlby(1980)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인간이 겪는 경험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고 하였고, 상실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 외부세계와 상호작용이 끊어진 상태를 우울이라고 하였다.

Bowlby와 Parkes(1970)는 슬픔(grief)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단계는 충격과 무감각의 단계로, 상실에 대한 모든 감정의 억압과 현실을 부정하는 감정적 정지상태를 의미한다. 2단계는 그리움과 갈구의 단계, 3단계는 절망과 혼란의 단계, 마지막 4단계는 재조직과 회복의 단계이다. Stroebe와 Schut(1999)는 심리학의 이중과정 이론을 응용하여 사별 대처에 관한 이중과정모델(dual process model)을 발표하였는데, Bowlby와 Parkes(1970)의 단계모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즉 단계모델은 주로 사별자의 슬픔과 상실 대상의 재매치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사별자가 상실경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행동은 상실 중심 대처와 회복 중심 대처로 진행되며, 두 방식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느 방향에 가까워지는지에 따라 사별 후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선행 연구

어린 시절에 부모와 사별하는 경험은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함께 주 양육자와 법적 보호자를 상실하며 겪는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러나 부모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 경우는 더욱 복잡한 상황을 야기한다. 자살 유가족과 일반사별 아동·청소년을

사별 후 1개월, 6개월, 13개월, 25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슬픔은 공통적인 반응이었으나 자살 유가족의 경우 불안, 분노, 수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였고, 사별 후 2년간 문제 행동과 불안 증상, 대인관계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Cerel, Fristad, Verducc, Welleri & Weller, 2006). 또한 Ratnarajah와 Schofield(2007)는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자녀는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해야 하기도 하고, 가족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거나, 남아 있는 부모와 정서적인 위축감 등의 관계적 문제를 경험하는 등 이차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경험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연령에 따라 상실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은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고, 부모의 자살에 노출된 자녀의 나이가 낮을수록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Niederkrötenhaler, Floderus, Alexanderson, Rasmussen & Mittendorfer-Rutz, 2010). 또한 Brent 등(1996)은 자살로 가족을 잃은 청소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3년의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어머니를 상실한 경우 우울증 재발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살로 부모를 잃은 아동·청소년이 대조군에 비해 크게 우울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자살시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Gutierrez, 1999), 오히려 자신이 또래보다 빨리 성숙해져서 문제에 잘 대처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낀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다(Hogan, 2006).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살 유가족 청소년에 대해 극히 소수의 연구만이 보고되었으며 상실 초기반응과 치료적 관점의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엄마의 자살을 목격한 아동의 치료적 개입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김신옥, 2010), 중학생 참여자의 부모자살 경험에 관한 초기 반응에 관한 연구(김정남, 2015)와 자살 유가족 구성원 각각의 생존경험을 분석한 연구(박지영, 2010)도 상실 초기의 상황과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부모 자살 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청소년의 애도 과정을 집단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서청희, 김경미, 2017)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 자살 유가족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발견만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부모를 자살로 잃은 청소년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지, 상실한 부모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애도과정에 드러난 장소성과 관계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교육학자이면서 철학자인 John Dewey(1938)가 설명한 과정과 경험의 본질, 경험의 연속성에 관한 개념들을 핵심요소로 발전하였는데,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의 특정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야기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의미와 이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연구자에 의해 구조화되는 참여자의 이야기와 경험이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안, 밖, 뒤, 앞의 4가지 방식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안으로의 방향이란 느낌, 희망, 도덕성 등과 같은 내적 조건을 의미하고, 밖으로의 방향은 환경과 실존적 상태와 같은 조건을 의미하며, 앞과 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성을 뜻한다. 또한 그들은 탐구를 위한 길잡이로서 비유적 표현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즉 시간성, 사회성, 그리고 장소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내러티브 탐구가 시점과 시간적인 관점을 다루며,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특정 장소에 대하여 진행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시간성, 관계성, 장소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경험이 있는 24세 미만의 성인이 된 청소년으로 자살예방센터 자조모임에 참여 중이며 사별 기간이 2년 이상인 유가족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 이때의 경험과 인지발달이 인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자조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외상적 경험의 디브리핑(debriefing) 효과를 인지한 청소년

년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안정성과 연구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여성 2명과 남성 2명으로, 어머니 상실이 2명, 아버지 상실이 2명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가명)	나이	성별	직업	상실 대상	상실 시기	상실 기간	사망일 (발견일)	목격 시간 및 발견 기간
강주	20	여	직장인	부	중2	5년1개월	2013.4	실종 1달 후 발견
지나	20	여	대학생	모	중3	4년	2014.5	당일 낮 목격
영민	22	남	무직	모	고3	2년11개월	2015.6	당일 밤 목격
재준	22	남	휴학생	부	고1	3년10개월	2014.7	실종 1년 후 발견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선정에 오랜 시간을 소요한 후, 2018년 4월부터 8월 까지 4명의 참여자를 4회씩 만나 1회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하고 녹음과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제공한 사진, 일기, 유서, 수첩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야기 내용의 포화와 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담긴 내용에 참여자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매 회기 녹음자료와 관찰일지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한 후에 참여자와 만남을 가졌으며, 분석한 내용을 참여자와 함께 점검한 후 수정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3차원적 탐구공간인 시간성, 사회성, 장소에서의 경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과거시점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을 삶의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 연구의 분석과정과 결과를 참여자와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중단할 권리,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아픈 경험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용기를 내준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의 존중과 이야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침묵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대화 속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참여자에게 유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후에는 매 회기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자질과 학문의 수행 정도를 반성하였으며, 임상가로서의 경험이 개입되지 않기 위한 성찰을 반복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전사 자료와 관찰일기, 참여자가 제공한 자료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숙련된 질적 연구자와 연구모임,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영역의 전문가들과 분석된 내용을 토의하며 삼각검증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집중과 반복적 검토, 신뢰관계를 확보한 참여자와의 소통, 자살예방 전문가와 질적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강주 이야기

1) 상실 이전 부모와의 관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아빠

강주의 엄마는 스무 살에 강주를 임신하여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주 아버지와 결혼하였다. 2년 1남의 장녀로 태어난 강주는 부모가 일을 하러 가면 두 살 아래 여

동생을 돌보는 착한 딸로 자랐고, 아빠는 어른스러운 강주를 자랑스러워하셨다. 평소 칭찬을 많이 해주던 아빠가 강주가 중학교 때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심하게 혼내고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강주는 아빠를 미워했고 무서워했다. 하지만 아빠는 농담도 잘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가족을 데리고 일을 하러 다니기도 하셨다.

아빠가 큰 트럭을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랑 제 동생이랑 따라다녔어요. 아빠 일하는 곳을. 차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큰 차 타면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의자도 폭신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한 강주 부모는 자주 다투고, 이혼을 했다가 약 1년 뒤 재결합을 하였고 얼마 뒤 막내가 생겼다. 그러나 그 해 겨울 아빠와 스키를 타러 갔던 행복한 여행은 아빠와의 마지막 추억이 되고 말았다.

가족들이랑 처음으로 놀러간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놀러갔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여행 겸 가족여행 겸으로 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아빠랑 간 여행이었고.

2) 부모를 자살로 잃은 그날: 믿어지지 않는 아빠의 죽음

강주가 중학교 2학년이 된 3월 25일은 아빠가 회식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실종된 날이 되었다. 그 뒤로 약 한달 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강주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울면서 집까지 걸어왔다. 실종된 아빠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것 같은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평소에 아빠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은 것, 무서워하며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도 모두 죄송했다.

그 당시 그냥 저는 집에 가는 내내 울었어요. 집에 가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친구들이 부축해줘서 갔거든요 집까지. 그래서 딱 그때 든 생각이...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엄마한테만 전화했었거든요. 이제 끝났다고 집에 간다고. 근데 어느 순간 아빠

가 술 먹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왜 항상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만 전화하나, 아빠한테도 전화 좀 해줘라 그랬었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 그랬을까...

아빠가 발견된 장소에 가족들과 함께 가게 되었으나, 강주는 동생들과 차에서 기다려야 했다. 어른들이 아빠 차 안에 있던 짐을 정리했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갑 속에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다. 강주 가족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친할머니 집 근처 산에 유골을 뿌렸다. 강주는 아빠를 그렇게 서둘러 보낸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울고 있는 엄마와 어른들에게 묻지도 못했고, 갑자기 당혹스런 상황에 멍하니 울기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왜 그랬는진 저는 모르겠어요. 왜 장례식도 안 치르고,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치뤘으면은 마음이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장례식도 안 치르고 바로 화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운구 드는 것도 고모부랑 아빠랑 제일 친한 두 분이랑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부검하는 것도 안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보내드리자 해서 그러셨고. 왜 장례식을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3) 상실 이후 생존의 경험: 빨리 끝나버린 사춘기

실종된 아빠가 발견된 날은 부모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지만, 엄마 뿐 아니라 어린 막내 동생도 한 살 생일에 아빠의 축하를 받지 못했다. 강주는 아빠 없이 커가는 막내를 보며 해 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둘 사진 찍을 때는 아빠 없이 엄마랑 동생들이랑 찍었는데, 사진관에서 기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둘 사진을 찍긴 찍어야 되니까. 그때는 가족들이 다 커플티를 입고 찍었어요. 파자마식으로 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래 가지고, ‘아, 잠깐 해외에 나가 계세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급히 아빠를 보내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빠를 잊으려고 그랬던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슬픔은 잊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과 부모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학교에 가족사항을 기입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

그때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거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직은 그게 그때는 못 받아들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괜찮냐고.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힘든 게 나타났던 것 같고.

아빠가 사망한 후 엄마는 맏딸인 강주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른 귀가와 동생들 돌보기, 그리고 집안일 돕기 등을 억지로 떠맡아야 했다. 강주는 아빠가 자살로 사망한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다른 일상의 무게 때문에 힘들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저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한창 친구들이랑 놀 나이에 전 항상 집에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막내 돌보고. 근데 요새는 좀 덜해요... 애들은 다 노는데 저만 항상 집에서 동생 보고. 동생이라서 봐줄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순간, 막내가 엄마 애긴지 제 애긴지 모르겠고 헛갈리는 순간도 있긴 있었는데...

가족은 아빠의 죽음 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강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목표로 해야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상담교사가 기업의 장학금을 연결해주어 간호조무학원에 다니게 된 강주는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힘든 시간 동안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막내 동생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빠가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큰 짐이 됐고. 엄마랑 저희에게는... (그런데) 아마 막내 없었으면, 장례식에서도 막내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워낙에 아빠를 닮아서 얼굴이 진짜 아빠 판

박이여가지고... 장례식장 가셔도 그때는 완전 애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아직 말은 못하지만 얼굴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는. 그리고 집에 와셔도 막내 덕분에 웃고...

아빠의 사망 소식을 접한 날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유도 선수를 하며 자기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여동생이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또한 외동딸인 엄마 곁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외할머니와 강주의 막내 동생을 누구보다 예뻐하시는 친할머니,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낸 사촌 오빠와 친척들이 힘들 때마다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엄마의 소개로 알게 된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또래들의 비슷한 경험이야기를 나누며 슬픔과 고통을 건디는 힘을 얻었다. 처음에는 그런 모임에 간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모임이 널리 알려져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네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 끼리 그런 이야길 한다는 게 더 힘이 되는 것 같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버텼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 성인이 된 자살 유자녀: 슬픔이 성장시켜준 꿈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하게 된 강주는 경제 활동을 하며 가족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기뻐지만, 벅찬 업무와 나아지지 않는 형편, 그리고 점점 늘어난 지출로 저금할 돈도 남지 않을 때는 허탈하고 화도 났다.

막내 유치원비도 제가 내주고 둘째 핸드폰 요금도 제가 내고 인터넷비 제가 내고, 그리고 또 둘째 운동하니까 운동에서 놀러 간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내고, 용돈도 제가 주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제가 남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 남는 돈은 적금을 해야 되는데 적금도 못 하고 남는 게 진짜 얼마 없더라고요. 적금을 해버리면 제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교통비도 제가 내는데 버스 하루에 두 번은 갈아타니까. 그러니까 적금도 아직까지 못 들고, 남는 게 없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직장생활과 소녀가장 역할로 상쇄시킨 것 같지만, 이루고 싶은 꿈은 아빠로 인해 더 커져갔다. 사망한 아빠를 상실한 슬픔과 아픔은 사람을 살리는 응급구조사의 꿈을 갖게 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냥 보통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많이 사무직, 회계 쪽으로 나가는데 일단은 제 꿈이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맞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 꿈이여 가지고... 저는 그런 쪽에서 일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소심한데 뭔가 좀 바쁘게 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뛰어 다니면서, 가만히 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2. 지나 이야기

1) 상실 이전 부모와의 관계: 나는 엄마가 사랑했던 딸

지나의 부모는 직장 동료였고, 결혼 후 2년 뒤에 지나를 낳았다. 아기였을 때 많이 울고 달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지나는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느려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를 받았다. 지나에게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엄마가 당시 기록한 일기와 수첩을 지나의 유품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엄마가 확실히 저를 아끼기는 했구나. 아끼고 저희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필기를 해가면서 알아보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신기했어요.

지나와 엄마는 같이 교회에 다녔고, 여우골이라 불리는 작은 산으로 산책을 자주 갔었다. 모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자주 산책을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산책을 하며 하신 이야기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네. 예상은 못했고, 그 전날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엄마가 ‘엄마 없어도 지나 잘 할 수 있지?’ 이러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씩씩하네, 다 컸네.’ 그러시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죠.

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빠가 엄마에게 입원을 권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거절을 했다. 지나 어렸을 때 엄마가 입원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지나와 동생은 친 할머니가 돌봐주었다. 지나는 엄마가 예전에 입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우울증이나 자살로 연결 짓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입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아빠가 엄마보고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보는 게 어떨냐, 그렇게 힘들면 그런 말을 했는데. 엄마는 진정 원한 것이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입원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냥 입원해라, 뭐 그런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

2) 부모를 자살로 잃은 그날: 따뜻했던 엄마 방이 공포가 된 날

늘 그랬듯 학교가 끝난 뒤 남동생과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수첩을 보았고 설마 유서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 대해 물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지나는 안방 화장실 욕조에 누워 있는 엄마를 발견하였다.

어, 들어왔을 때 조금 싸한 느낌이 있었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왜 안 받지 하고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거실 식탁에 수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유서였나 봐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저희 아빠한테 지나 아빠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나랑 동생 잘 돌봐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아 맞다. 그리고 저한테도 저랑 동생한테도 나는 못한 엄마인 것 같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남매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남동생이 119에 전화를 했다. 서둘러 달려온 엄마 친구와 남매는 힘을 합해 엄마를 욕소에서 건졌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동생에게 휴지를 주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그 상황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나는 멍하니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렇죠. 올 때까지 일단은 그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티비를 보자, (실소)

티비를 틀어서 일박이일 프로그램을 보고, 그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119 구조대원이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지나는 병원에서 경찰과 아빠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지나는 엄마 친구들과 식당에 갔지만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다. 엄마를 감싼 흰색 천, 너무 많이 우시던 할머니와 친척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난다. 그리고 ‘앞으로 장녀인 네가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찡릿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던 느낌도 선명하다.

음. 저 글썽.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네가 장녀가 됐으니까 네가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조금, ‘아,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로 옮기는 차를 탔을 때, 이제 엄마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만 계속 흘렸다. 납골함 402호 칸에 엄마를 넣을 때 너무 많이 울었던 지나에게 아빠가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지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빠는 슬프지 않은 것인지 궁금했다.

그 납골함을 이제 그 안에다가 넣을 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울지 말라고 그러셨고. 좀 그쳤는데, ‘아빠는 안 슬픈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상실 이후 생존의 경험: 의젓한 장녀로 살아가기

엄마의 죽음 이후 아빠는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지나는 엄마와 추억이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엄마의 옷가지는 정리했지만 엄마가 사용하던 가구나 장신구, 엄마가 만든 목도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아빠가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서 이사를 갈까하고 제안하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사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뭐 이사를 안 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새 집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았고, 아빠도 집을 구하는데 괜한 힘을 뺄까봐.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엄마의 체취, 체취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남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자던 엄마의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친할머니와 거실에서 몇 달을 자며 생활했다. 지금은 지나가 엄마 방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엄마를 발견한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엄마와 함께 자던 침대에 혼자 누워 엄마와 같이 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하였다.

어, 돌아가신 이후로 사실 안방 화장실을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잘 썼던 곳인데 엄마가 안계시니까 거길 들어가는 게 꺼려졌던 것 같고. 집에 혼자 있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침대에서 예전처럼 셋이서(엄마, 남동생, 나) 같이 자고 싶다 그런 생각. 아 그 때는 이랬었는데, 아..

감성적이거나 눈물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친구네 집에 갔을 때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났다. 친구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친구에게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고, 예전에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주던 엄마가 떠올라 그리웠고, 지금 혼자 남겨진 것이 몹시 외로웠다.

그 친구 어머님께서 국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녁으로 먹으라고. 국수를 해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 국수, 아 약간 우리 엄마도 이런 면 요리를 잘 했는데, 스파게티 같은 걸 잘 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친구 아주머니, 어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는데. 아, 엄마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좀 친구가 부럽다.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마음을 딸에게 털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운함과 미안함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살이 많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건강을 걱정하기는 했지만 우울증을 의심하지 못했다. 엄마는 우울증을 건디며 지나와 동생

을 돌보았지만, 더 이상 건딜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가버린 엄마가 야속하고 원망스럽지만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 엄마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음. 음... 그나마 그게 엄마도 최후의, 아니 최후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지, 최선책.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병원에 간다고 해도 엄마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서 뭐 난리를 쳤다 그런 거를 지나 동생이나 아빠가 들으면 더 분명히 더 속상해 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을 최선책으로 생각해서 방법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4) 성인이 된 자살 유자녀: 넓게 번져가는 엄마의 그림자

엄마의 빈자리는 친할머니가 몇 년간 채워주셨지만, 지나가 성인이 되고 친가에 사정이 생겨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세 식구가 다시 적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지금, 대학생활 적응이 어렵게 느껴지고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힘들 때, 그리고 스무 살이 되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면서 엄마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다.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오늘은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좋은 일이나 실수,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엄마의 반응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던 개가 작년에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순이를 동물전용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고 유골함에 넣어 안치했을 때 지나는 울지 않았다. 지나 곁을 지켜줬던 고마움이 컸지만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곳에 가서 쉬게 된 것이라 생각하니 무덤덤해졌다. 또한 엄마의 죽음 이후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순이의 죽음은 예상할 수 있었으며, 엄마와 순이도 죽으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다지 슬프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약간 사람은 어차피 언젠가 한번 죽는 순간이 있을 텐데, 사람은 죽는다는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뭐 약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어, 네. 그런 거를 좀 인지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랑 할아버지, 순이는 잘 있나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가,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최근에 아빠와 남동생이 거실에서 축구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방에 혼자 있던 지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지나를 아빠에게 여자 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아빠의 행복을 빌면서도 섭섭했다. 또 우울해하는 지나에게 아빠가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엄마에게 같은 말을 했던 장면이 떠올라 더욱 기분이 나빠졌다.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그게 그런 게 표정으로 아무래도 티가 나는지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명을 때리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해서 없다, 아니요, 없다고 했는데. 뭐 요즘 따라 자주 그러냐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심각하면 너도 병원에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아, 병원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을 나한테도 똑같이 하는구나. 그런 말을 저한테도 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아빠가 생각한 나뉘의 해결책이지 않을까. 제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엄마도 나랑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엄마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3. 영민 이야기

1) 상실 이전 부모와의 관계: 애증의 가족사

영민의 부모는 대학에서 만났다. 의대생이던 아빠와 간호대 학생이던 엄마는 양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몇 친구들과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영민이 태어난 후 아빠는 군의관으로 복역했고, 엄마는 시댁에 맞추려고 노력했으나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영민은 엄마가 평소 결혼식과 시댁에 대한 불만을 자주 이야기했음을 회상했다.

아, 이 결혼. 엄마는 그니까 되게 이 당시에는 되게 막 이렇게 좀 속마음을 잘 표현 안하고 조신하고 아빠가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조용하게 같이 하고 그때 좀 그런 성격이었대요. 근데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엄청 괴팍해지셨거든요. 성격이. 그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은. 저 낳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아빠랑 싸울 때도 많아지고. 엄마는 되게 막 힘들어 했었어요.

영민이 고등학생이 된 후 엄마와의 다툼은 더욱 격해졌고, 아빠도 엄마와 심하게 싸우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는 외아들을 잘 챙겨주다가도 한 순간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견잡을 수 없는 일을 벌였고, 그러다 사과하곤 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비만해져 위절제술을 받은 엄마는 부작용으로 구토와 통증에 시달려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다. 신체 건강의 악화와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던 엄마이지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안 좋은 날이 많아서 무심코 넘겼던 그날이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근데 아빠랑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엄마랑 말다툼하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조절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라서 거기 적응을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힘들어 하고 발작하고 그래도 원래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뭐. 막. 그냥 무덤덤해졌던 것 같아요. 설마 엄마가 죽을 거라는 생각도 절대 안했었고.

엄마는 죽고 싶다는 말과 죽는 방법에 대해서 영민에게 말했었지만, 엄마가 정말로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엄마였고, 과거 더 힘들었던 시기에도 꾀꾀하게 지내온 엄마였으며, 평소 좋아하던 예쁜 옷과 장신구,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언제나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울증으로 자살할 거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못 했어요. 진짜 아빠도 그렇고. 엄마는 평소에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평소에 예쁜 옷 입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삶에 의욕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꾸미고 무기력하게 안 있고 꾸미고 막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 부모를 자살로 잃은 그날: 엄마와의 마지막 날

그날 밤 영민의 부모는 심하게 다투었다. 엄마는 영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민은 형식적으로 응대했다. 새벽 1시경, 영민은 엄마를 걱정하며 안방에 들어갔고, 화장실 쪽에 벡타이로 목을 맨 엄마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거실에 있다 달려온 아빠는 가위로 벡타이를 자르고 인공호흡을 했고, 영민은 119를 불렀다. 그날 밤 엄마가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엄마는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영민은 오랫동안 많이 괴로워했다.

그날 밤에 말다툼이 좀 있었고 엄마가 제가 그때 모의고사를 보고 자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저를 엄마가 깨우면서 그때 아빠랑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그랬었어요. 집 밖으로 엄마가 너무 난동을 피우니까. 그래서 엄마가 저를 막 깨우면서 ‘나 좀 도와줘.’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그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걸 안 쫓아내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냥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엄마 곁에 계속 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엄마의 장례식장에 온 친척들과 지인들은 영민과 아빠를 위로했다. 아빠의 교회 지인은 본인의 형이 자살로 사망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점점 열어진다’고 했고, 엄마와 친분이 있던 교회 사모는 엄마의 믿음이 신실했으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어느 먼 친척이 사려도, 공감도 없이 한 말은 상처가 되었다.

그니까 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나한테 밥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런 존재로서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 엄마가 밥을 해주진 안 해주진 간에 저는 굉장히 엄마랑 가까운 관계였고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였는데 ‘엄마가 없어도 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하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영안실에서 흰 천으로 온몸을 싸맨 채 하얗게 화장한 엄마의 얼굴이 마지막이었다.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잔인하게 떠난 엄마 생각에, 그리고 엄마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저는 화장하러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리 없이 펄펄 울었어요. 옆에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우는지 모르더라고요. 아무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엄마랑 이게 마지막이구나.

3) 상실 이후 생존의 경험: 지옥에서 비는 엄마의 천국

영민은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심이 생겼다. 아직 호흡이 있던 엄마가 119에 실려갈 때 엄마를 살려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천국에 존재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갈등을 느꼈다.

그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엄마가 119, 제가 119 신고하고 엄마는 그때 사망판정이 안 난 상태였고, 아빠가 인공호흡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실하게.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차피 기도해도 나 혼자서 시끄럽게 기도하고 혼잣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사망한 날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치룬 그날 밤이었다. 졸업과 진학을 앞둔 시기에 갑자기 엄마를 자살로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영민은 자퇴를 했다. 기독교 학교에 엄마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고, 아무 일 없는 듯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다. 그 후 여러 학원을 다녀보았지만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저는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그 학교, 다음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생들, 선생님들 다 속이고 그러고 다닐 수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하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했고, 수능도 안 봤죠. 그때 중단을 했었고 저는 재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도,

재수학원도 다녀왔고, 제가 입시미술, 제가 미술을 전공하려고 했었거든요. 입시미술 학원도 다시 다녀왔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 뒀죠.

영민은 엄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컸다. 아픈 엄마와 맞서 싸우고, 그날 엄마의 도움요청을 무시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러나 어느 날 어찌다 나는 엄마와의 대화 내용 때문에 엄마는 영민이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떠났고, 그러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영민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해주었다.

그래서 엄마가,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를 엄마는 모르고 있었어요. 맨날 제가 그 얘길 하니깐, 제가 엄마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감동을 받고 그러셨더라고요. ‘너는 천사야.’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고 엄마랑 화해를 한 거죠.

엄마 사망 후 영민은 1년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게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모가 영민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했고,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미술에 대한 꿈도 무산되고, 유학도 준비하다 포기한 뒤,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해 애완동물학과에도 다녀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러한 시간은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을 동반한 허무주의로 다가왔다.

네... 좀 생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했었어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뭘 해도 허무하고, 그리고 나이가 살아간다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병이 나서 죽든 어쨌든 죽는 거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죽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우울하고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랬었어요.

4) 성인이 된 자살 유자녀: 오랜 쉼 뒤에 다시 일어남

엄마가 살아 있을 때 영민은 아빠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엄마 사망 후 아빠가 의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엄마의 힘들었던 과거, 신체와 정신적 질환, 종교적 의미와 해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고, 엄마의 자살은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빠랑 이야길 많이 했죠. 근데 아빠랑 생각해낸 결론은 일단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게 그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미 뇌에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육체에, 뇌에 일어나는 그런 정신 병이라서, 일단 엄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아빠랑 나는 결론을 냈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어 이사를 했다. 엄마가 없는 공간은 쓸쓸했지만 영민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거의 유일한 활동으로 교회에 나갔고 예배 반주자를 하였으며, 유가족 자조모임에 참석했다. 처음 자조모임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았다.

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야기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꼭 나, 이 세상에서 나, 내 가족만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여러 사람들과 하다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더 이야기를 할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영민은 여전히 엄마의 부재가 믿기지 않지만 최근 기분이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의 자살이 자퇴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비밀과 거짓말을 솔직하게 털어내고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좋아하는 피아노와 음악으로 진로를 정하고 예술종합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 소식을 접하였다.

네,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살면서 아... 사람이 그게 왜 친구들을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런 건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편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가라앉게 되고, 내가 도대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느낌이 제 존재감이 너무 안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엔 학교에 입학해서도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생각이예요 지금은.

4. 재준 이야기

1) 상실 이전 부모와의 관계: 추억이 없는 가족

재준은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다. 세 살 경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 손에 자랐고, 어머니 얼굴은 기억에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가 가출을 한 뒤 누나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지만 재준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좋아했다.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아버지랑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원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것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어서 놀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추억될 만한 것이 없긴 해요.

아버지는 독자로 태어나 가족의 기대를 받았지만, 대학에 진학해 사회운동과 정치 활동을 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 젊어서 사업에 실패한 후로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는데, 사망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이었다. 여의치 않은 생활에도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재준을 종종 지역의 당원 모임에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그냥 선거 유세하는 데나 지역 사람들끼리 친한 당원들끼리 모인 모임이나 이런데 데리고 다니셨죠. 전 그냥 뭇 모르고, 그냥 저한테 아버지 친구 있는데 따라다녔다는 이런 느낌, 얘기 들어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셨기 때문에 재준은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웠다. 재준이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자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비슷한 말 한 마디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그렇게 남겨진 상황을 재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많은 대화를 했던 사이가 아니었고, 그냥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야자까지 하고 학교 오고 집 오고 그러면 11시, 12시 되고. 부모님이 일찍 나가시고 보통 새벽에 나가셔서 그때쯤 주무시고 계시고... 이렇게 반대의 사이클이어서 깊게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2) 부모를 자살로 잃은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8월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직접 실종신고를 할 때도 걱정스런 마음은 있었지만 재준은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찾지 못하자 차츰 아버지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 해 7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분골이 된 아버지를 만났다.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놨었고 이제 당일에 OO에서 유골 발견된 게 있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결과, '맞다'는 연락이 와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어요. 야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발견된 건 4월, 5월 즈음인데 봄나물 캐러 야산 올라갔다가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한 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추도식을 치르고 납골당에 아버지를 안치했다. 재준은 할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누나가 먼저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가 아버지 소식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건강문제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누나를 제외하고 모두 덤덤하고 조용하게 아버지를 보내드렸다.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냈던 것 같고요. 누나를 제외하고는 다 무덤덤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누나는 엄청 슬퍼했던 것 같아요. 체감 같은 느낌이, 어, 아빠의 기억 속에 누나의 모습은 사고치는 기억들이 대부분이고, 누나도 그걸 인지한 상태였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 때문에.

3) 상실 이후 생존의 경험: 시린 벽에 느껴진 온기

따로 살던 친누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실종 후 영민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혼자 생존했다. 어머니가 살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역시 남이었다. 아버지를 보낸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세상에 내 편, 내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다른 자살 유가족도 경험하지 못한 자신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상실을 경험했다는 아이들도 보호자가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그런 거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어쨌든 보호자가 없었고, 가족은 있었지만 거의 교류 안하는 가족, 그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아버지 친구들이 여러 문제에 도움을 주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당장의 문제들이 버거웠다. 멍하니 매일 닦치는 일들을 처리하며 묵묵히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 적응하려 했지만 고3이 되고 4월 즈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만큼 벅찬 순간이 찾아 왔다.

제가 힘들었을 때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고 힘들어서요..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시고 구체적으로 힘들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힘들었고, 대학을 유지하는 것도,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그러지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얹혀져 있어서요.. 그냥 그, 손목을 그었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순간부터 매 순간 느껴지는 차가운 벽이 아버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혼자 살아갈 힘도, 희망도 남아 있지 않아 자살을 시도했을 때,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에게서 세상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 연결되어 상담을 받고 자조모임에 참석하며 비슷한 경험

을 한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상황 되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4) 성인이 된 자살 유자녀: 스무 살의 새벽 노래

졸업과 입학식 때도 겪었지만,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가 죽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한 아들을 응원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부모들, 재준에게도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았다.

선거를 하면서 아들이 선거를 나왔는데 응원하는 걸 볼 때, 아니면 세월호 관련 되서 본인들의 말씀이나 그런 걸 들을 때 좀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야기, 나한테 자녀는 어땠고. 그런 이야길 들었을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사회운동에 관한 책과 강의를 들으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은 그 질문에 그러한 공부가 실마리를 제 공해주었다. 또한 그렇게 남겨져 외롭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을 대면해주는 듯한 시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간 아버지와 이렇게 살아가는 재준의 상황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박노해 선생님이라고 이분의 시집인데. 딱 펼치면 보이는 시가 되게 마음을 울리는 시 중에 하나여서요. ('스무 살의 새벽 노래'를 가리키며) 되게 힘들 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모두가 이랬고 예전에도 이랬고 그냥 힘들어 여러 가지 힘들어 나만 특이해서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든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런 걸 모두가 바꿔야 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시였어요.

재준은 가족이 비워진 자리에 세상을 그려 넣었다. 과거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현실과 미래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렇게 보낸 5년 동안 날카롭고 아팠던 그 일이 다행히 무더진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있게 되었고, 원망했던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보다는, 이해라고 할 수 있나. 이해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삶이었고, 어쨌든 그걸 내가 막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남아 있는 건 아니길 바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이해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중한다...

5. 분석적 요약

본 연구는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청소년기 경험을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의 분석 기준인 시간성, 관계성, 장소성(Clandinin & Connelly, 2000)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간성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성은 상실 이전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를 자살로 잃은 그날의 기억, 상실 이후 생존의 경험, 그리고 성인이 된 현재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자살을 이해하고자 사망한 부모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그리움과 슬픔, 원망과 죄책감 등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였다.

둘째, 관계성은 개인적, 사회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망한 부모와 참여자의 생전의 관계와 사망 후 단절과 상실의 관계에서 그리움과 계속되는 연결의 관계로 개인적 상호작용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를 둘러싼 남겨진 가족과 친구, 상담자, 학교 교사,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지지체계와의 상호작용과 유가족 자조모임과 장학금 제도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장소성은 이야기에서의 상황(situation)을 말하는데, 참여자들은 부모가 사망한 장소, 부모와 함께 갔던 공원이나 교회 등 특정한 공간을 떠올리며 공포와 슬픔,

그리움 등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 사망 후 일상적이던 학교생활은 참여자마다 다른 의미로 변화하였으며, 점차 진학, 직장, 사회, 미래의 꿈과 같은 확장된 상황으로 연결되어 부모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었다. 즉,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실경험과 사망한 부모,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조망하는 전체적인 관점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을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는 어머니 사별 경험자 2명과 아버지 사별자 2명으로 구분되었는데, 어머니는 집 안에서 사망하여 자녀들이 직접 발견하고 신고하여, 전체적인 사별 과정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실종 후 발견 소식을 전달받는 간접적인 과정을 통해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를 상실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애착관계 관련 상실감을 경험하였고, 아버지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와 주로 관련되었으며,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경우는 생존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여 상실의 슬픔과 경제적 고통을 모두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실대상의 성별과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따른 애도과정의 경험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접근이 개인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사망한 부모와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망한 부모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 부모의 빈자리를 전망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가 자살로 사망한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 다양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지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의 자살이라는 커다란 외상을 겪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지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에서 받는 공통된 지원 뿐 아니라 부모가 자살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가족체계의 다양한 변화 등 갑작스러운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수도권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거리의 한계와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이용하는 유가족 수가 제한적이다. 이에 민간과 지역 공동체, 온라인 등 심리적, 물리적으로 근접한 유가족 지원체계가 유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통로로 마련되어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공공전달체계의 역할을 확대 및 체계화하여, 자살 유가족이라는 낙인이 2차 외상이 되거나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살과 자살 유가족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유가족 청소년에 대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행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살 유가족의 연령대별 특징적 경험과 부모성별과 유가족의 성별에 따른 경험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와 종단연구를 통한 회복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가득 (2012).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척 고통과 화해. **한국사회복지학**, 64(4), 5-29.
- 김신옥 (2010). 엄마의 자살을 목격한 10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애도. **미래놀이상담연구**, 6, 25-65.
- 김영아, 변재원 (2016). 자살 유가족(suicide survivor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35(1), 43-63.
- 김정남 (2015).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183-201.
- 박지영 (2007). 노인자살 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295-330.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1.
- 서창희, 김정미 (2017). 자살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의 애도 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55-83.
- 엄은주 (2015). **자살로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훈 (2014). 친구를 잃은 대학생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학논단**, 76, 293-323.
- 이종익 (2013). **자살한 청소년 부모의 떠나보냄 경험**.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7).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http://www.kosis.kr>.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 Parkes, C. M. (1970). Separation and loss within the family. In E. J. Anthony, & C. Kouporn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International Yearbook of child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 (pp. 197-216). New York: Wiley.

- Brent, D. A., Moritz, G., Bridge, J., Perper, J., & Canobbio, R. (1996). The impact of adolescent suicide on siblings and parents: A longitudinal follow-up.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3), 253-259. doi:10.1111/j.1943-278X.1996.tb00610.x
- Cerel, J., Fristad, M. A., Verducci, J., Weller, R. A., & Weller, E. B. (2006). Childhood bereavement: Psychopathology in the 2 years postparental dea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6), 681-690. doi:10.1097/01.chi.0000215327.58799.0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파주: 교육과학사.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1), 14-21. doi:10.1111/j.0031-5990.2005.00004.x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 Gutierrez, P. M. (1999). Suicidality in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Death Studies*, 23(4), 359-370. doi:10.1080/074811899201000
- Hogan, N. S. (2006). Understanding adolescent sibling bereavement. *The Forum*, 32(1), 6-7.
- Krarup, G., Nielsen, B., Rask, P., & Petersen, P. (1991). Childhood experiences and repeated suicidal behavio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3(1), 16-19. doi:10.1111/j.1600-0447.1991.tb05505.x
- Kuramoto, S. J., Brent, D. A., & Wilcox, H. C. (2009). The impact of parental suicide on child and adolescent offspr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9(2), 137-151. doi:10.1521/suli.2009.39.2.137
- Niederkrötenhaler, T., Floderus, B., Alexanderson, K., Rasmussen, F., & Mittendorfer-Rutz, E. (2010). Exposure to parental mortality and markers of morbidity, and the risks of attempted and completed suicide in offspring: An analysis of sensitive life period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6(3), 233-239. doi:10.1136/jech.2010.109595

- Ratnarajah, D., & Schofield, M. J. (2007). Parental suicide and its aftermath: A review. *Journal of Family Studies*, 13(1), 78-93. doi:10.5172/jfs.327.13.1.78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doi:10.1080/074811899201046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 of adolescents who have lost a parent due to suicide

Seo, Chonghee* · Lee, Su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 parent's suicide as a surviving family member. In order to do this, the present study utilized a narrative inquiry method, which uses three dimensions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based upon the study participants' unique experience.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four adolescents who were younger than 24 years old, who experienced a mother's or father's suicide in their middle- and high-school period, and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a self-help group for surviving family members at a suicide prevention center.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experience of study participants regarding a parent's suicide can be composed of four categories of processes by time: 1) the time before a parent's suicide, 2) the day of a parent's suicide, 3) survival time after a parent's suicide, and 4) current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a deeper meaning to the experience of a parent's suicide by using each participant's own expressions based on their unique experience, and helped to understand crisis situations in the process of growth experience and supporting systems regarding the overcoming of cri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elping professionals should focus on prevention of secondary crisis amongst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a parent's suicide, and help them recover and continue to grow by developing appropriate social support systems.

Key Words: suicide, loss, adolescent, suicide survivor

투고일: 2019. 9. 15, 심사일: 2019. 11. 1, 심사완료일: 2019. 11. 11

* Soongsil University